

전북도, 미래성장 이끌 22개 대형 국책사업 추진

국가스마트육묘단지·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총 사업비 2조5천억원 소요 예상 국비 확보 총력키로

전북도가 미래성장을 이끌 22건의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부가가치산업인 육종과 육묘를 담당할 국가스마트육묘단지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생산단지 등

로 구성되는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내 유일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을 연계한 동물약품산업 육성기반 구축, 웹툰거리와 웹툰 창작 체험관 등이 들어서는 웹툰 체험도시 조성 등이 있다.

지리산 국립산림교육문화센터, 에너지 안전 종합분석센터,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소상공인 광역 통합물류센터 건립도 포함됐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고군산마리나항만 개발, 새만금항 인입 철도 노선 연장, 새만금 동서1축 도로 확장, 고창 해리~공음 시설개량 등이 선정됐다. 사업비는 총 2조 571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들 사업은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지

난 4월부터 5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책사업발굴 포럼'을 구성해 발굴한 것이다. 전북도는 전문가 자문과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이를 더욱 구체화한 뒤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의 당위성 등에 대한 논리를 보강해 국책사업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을 재현한 자수작품.

신안 지도에 전통자수박물관 들어선다

군, 옛 지도북초등학교에

신안 지도에 전통자수박물관이 들어선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에서 전통자수의 맥을 잇고 있는 예립전통자수연구원 이미려 원장과 가정 '신안 전통자수박물관'을 추진한다. 이미려 원장은 목포 출신으로 1976년 자수공예에 입문한 후 2003년부터 12일부서 내년 1월까지 전남여성플라자 2층에서 '천년을 이어 온 빛, 남도자수' 특별전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다. 군은 전통자수 명인 이미려의 자수 작품과 공예기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조만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폐교된 지도읍 옛 지도북초등학교에 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려 원장과 명인전승아카데미 초급, 중급과정을 이수한 9명의 제자 작품은 12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남여성플라자 2층에서 '천년을 이어 온 빛, 남도자수' 특별전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산업 전문 과정인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취업연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군산고용지원센터, 신산업맞춤형 직업훈련

지역 미취업자 대상 실시 훈련생 40% 구직 성공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군산 지역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직(구직)자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기 신산업 맞춤형 직업훈련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직업훈련은 군산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주력 산업이 무너지며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해 이들에게 새로운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자 지난 8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신산업 전문 과정인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취업연계 '위그선 정비사', '위그선 운항관리사' 등으로 현재까지 40명이 훈련에 참여해 16명(40%)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성과를 냈다. 위그선은 항공기술이 80%이상 들어간 선박으로 시속 200km 이상을 내며 포항-을

릉도 구간을 첫 출항 예정(1시간 소요)인 차세대 운송수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안모(31)씨는 "지인의 소개로 수면비행선박 정비사 과정에 참여해 항공·선박의 이론을 배우고, 복합재(FRP) 성형 실습을 하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남군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장은 "2019년도에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이 아닌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연계형 교육 과정'을 확대 개설할 계획"이라며 취업을 원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군산해경 '태평양 10호' 1위 해양경찰청, 우수함정 평가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2018년 종합우수함정' 평가에서 군산해양경찰서 태평양 10호(사진)가 대형함정 분야 종합 1위로 선발됐다.

1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종합우수 함정은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선발한 훈련 우수함정 20척을 대상으로 업무실적과 훈련 노력, 구조역량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제도다. 선발에는 내부 평가위원뿐만 아닌 해군과 관세청 등의 외부 평가위원까지 참여해 공정성을 높였고, 감사관이 함정의 실적을 면밀하게 따져 객관적 검증까지 거치된다. 태평양 10호의 경우 각종 사건-사고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검증받았다. 특히 관내에서 발생한 외국 어선 화재사건에서 인명구조 성과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군산해경은 올해 서해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시행한 해상종합훈련에서도 대형(태평양 10호)과 중형(해우리 21호)분야 1위를 모두 독식했다. 그뿐만 아니라, 파출소의 구조역량 평가에서도 군산해경 새만금 파출소가 서해 최우수 파출소로 선정되는 등 육상과 해상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태평양 10호 함장 이현관 경정은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해 준 승조원들에게 감사하고, 전국 1위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종합우수함정으로 선정되면 명예로운 우수함정 기념패와 포상금, 표창 등 다양한 부상을 받게 된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곡성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지구 선정

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곡성군 곡성읍이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지역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지역 정비를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지난 8월 공모사업 응모를 시작으로 현장 실사와 평가를 거쳐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곡성읍 묘천리 일원에는 국민임대주택 50가구, 영구임대주택 40가구, 행복주택 60가구 등 모두 15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말까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1년 말까지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고창군, 민선 7기 공약 이행 '정책담당관제' 시행

고창군이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쟁길 수 있는 정책담당관제를 시행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약 이행 총괄 담당관(과장급)을 6개 분야로 분류해 부서간 업무조정과 협력 행정을 펼치며,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전략사업인 14개 사업에 대해 정책담당자를 따로 지정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전문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높여갈 방침이다. 매월 둘째 주 월요일마다 공약사업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해 추진과정에 서의 문제점 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행착오 최소화해 나간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군민과 약속한 모든 공약사업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버리고 모든 공직자가 사업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익산 국가산단, 재생사업 추진 스마트산단 탈바꿈

준공 40년이 넘는 익산시 영등동 익산국가산업단지가 재생사업을 통해 스마트 산업단지로 변신을 시도한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국가산단이 정부의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대상에 선정돼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1974년 준공된 익산국가산단은 시설, 건축, 교통, 주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도심 근접성, 뛰어난 교통 입지, 패션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시너지 효과 등 장점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1500억원과 함께 민간자금 6000억원을 유치, 2021년까지 재생사업을 펼쳐 신산업단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굴뚝 산업단지 이미지를 떨치고 도시형

첨단 산단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목표다. 시는 이를 위해 고부가 업종 유치, 토지 이용 계획 변경, 기업 지원시설 확충, 경관 개선, 지중화 사업, 작업환경 개선, 도로와 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주차시스템, 스마트 가로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 공장은 설계, 개발, 제조, 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인공지능 로봇 등을 도입한 지능형 공장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덕남동 임야 1~2년내 대박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일시불조정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문의. 010-6834-7400